

오피니언

테마칼럼

생명과학

여성과 소비

교단일기

스토리텔링 파워



김신희

어머니의 명절

곳이 찜뚫다. 다시 말리는 과정을 거쳐야 드디어 방앗간으로 갈 자격을 얻게 된다. 참기름을 짜는 동안 옥시 기름이 바뀌거나 한 방울이라도 허실이 있을까봐 몸소 나서서 협조를 아끼지 않으며 눈을 떼지 못한다. 때로는 너무 힘겹게 준비하는 어머니가 안타까워 나는 괜히 화를 내기도 한다. 제발 사먹으면 되니까 왜 농사 그만 지으시라고. 그러면서도 은근히 기대하게 되는 참기름이다. 모처럼 해외여행이라도 떠나게 되면 음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음식의 재료들은 다 비싼데 강한 향신료 때문에 맛있게 먹을 수가 없다. 그 나라의 음식 문화가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럴 때는 유난히 참기름의 향미가 그리워진다. 우리나라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참기름은 특히 전라도의 음식 맛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풍족한 곡창지대에기에 참기름을 아끼지 않고 요리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농사란 적당이란 말이 통하지 않는다. 시기를 놓치면 소출이 준다. 때마침이 하려는 농사는 오랜 경험과 지혜가 쌓여야 하

는 고된 직업이다. 그래서 항상 무리하게 되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긴다. 농촌이 고통화되면서 미래의 농촌을 생각하면 걱정이 된다. 그런데 내 눈에는 분명 절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부류들이 있다. 도시에 살면서 시골을 동경하여 '주말 농장'이라고 해 볼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니들이 농사를 알아?"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 된다. 그렇게라도 해보려 하는 사람은 그나마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다. 모든 곡식과 먹을거리들이 우리의 밥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하는지를 안다면 버려지는 음식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먹을 만큼의 적당한 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외식의 경우도 어떤 때는 먹는 것보다 버려지는 음식이 더 많을 때가 있다. 고스란히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음식들을 보면 죄 받지 않을까 두렵기조차 하다. 지구의 자원은 한계가 있는데 낭비함으로써 환경을 오염시켜 지구라는 별을 병들게 하고 있다. 많은 분야에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졌

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인력은 쓸모없어지고 과잉생산으로 잉여물산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다. 농산물도 과잉생산으로 손해를 보는가 하면 흉작으로 공급이 달리는 경우가 흔하다. 농사도 투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농촌을 희생시켜 잘 살게 되는 경우가 한국이다. 미래를 생각하면 결코 옳은 방식은 아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온다. 자식들을 위해 참기름 한 병이라도 나누어 줄 생각에 바쁘실 우리의 어머니들이 떠오른다. 국산 참기름이 아무리 비싸다한들 어머니들의 정성에 비하겠는가. 결코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으리라. 어디 참기름뿐이겠는가. 들깨기름, 고춧가루, 팥아종, 나물을 말리고 햇살을 준비하시어 이 땅의 어머니들... 명절을 준비하는 바쁜 손길을 생각한다면 울 추석에는 아픈 곳을 만져드리는 따뜻한 마음을 꼭 실현해보았으면 한다. <광주YWCA 사무총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빈곤층 소외시키는 성적 위주 대학 장학금

생활고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은 가족 생계 책임지라, 학비 마련하라. 사실상 공부할 시간이 없다. 피딱으로 번 돈은 고스란히 학비로 들어간다. 한 학기 등록하고 나면, 또다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고난의 연속이다. 반면 가정 형편이 여유있는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 등을 오가며 공부에 올인한 탓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보다 훨씬 쉽게 장학금을 타고 있다. 결국, 생활고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낸 등록금을 여유있는 생활에서 공부에만 전념하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셈이다. 이렇게 장학금이 부유층 빈익빈으로 치우친 데는 대학들이 장학금을 성적 위주로 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대의 경우 2010년 장학금 173억 원 가운데 성적 장학금이 89억 원으로 52%에 달하지만 저소득층 장학금은 17%인 30억 원에 불과하다. 조선대도 161억 원 중 성적 장학금이

44.1%(71억2000만 원), 저소득층 장학금은 13.8%(22억2000만 원)에 머물렀다. 동신대와 광주대 등 광주·전남지역 대학들도 상황은 이와 비슷하다. 광주지역 주요 사립대를 기준으로 보면 성적 장학금 비율을 절반 가량 줄여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돌리게 되면 학교별로 최소 300명에서 많게는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매년 100~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장학 정책으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다. 대학생들은 등록금의 고공행진에다 경기불황과 고물가까지 겹쳐 학업을 포기하거나 아르바이트 도중 사망하는 대학생까지 생겨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장학금을 예전과 같이 우수한 학생에게 주는 격려금 성격에서 탈피, 입학생들이 4년간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장려금 성격으로 바꾸어야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과 공생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고삐 풀린 물가, 정부 대체 뭘 하고 있는가

물가가 정부대책을 비롯듯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3년여 만에 5%를 넘어선 것이다. 이렇다 할 대책이처럼 불어나는 빛과 고삐 풀린 물가에 서민 가계가 무너지는 것 아닌지 걱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3%로 지난 2008년 8월(5.6%)이래 전전 같은 달 대비 상승폭이 가장 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08년 6월~9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 같은 물가 급등세는 농산물 가격 급등에 주로 기인한 것이지만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역시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 올 물가 목표치 4%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미 '빨간 불'이 켜진 서민 가계의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빛에 짓눌려 자는 오늘에 주저앉지 않는다. 품은 변화와 새 창조를 힘써야 한다. 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잠2:18) 품이 있는 지도자들은 보고 싶다. <광주 성안교회 담임목사>

10% 넘는 증가율을 보이며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 반면 가계의 부채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렇다 할 대책이처럼 불어나는 빛과 고삐 풀린 물가에 서민 가계가 무너지는 것 아닌지 걱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3%로 지난 2008년 8월(5.6%)이래 전전 같은 달 대비 상승폭이 가장 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08년 6월~9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 같은 물가 급등세는 농산물 가격 급등에 주로 기인한 것이지만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역시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 올 물가 목표치 4%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미 '빨간 불'이 켜진 서민 가계의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빛에 짓눌려 자는 오늘에 주저앉지 않는다. 품은 변화와 새 창조를 힘써야 한다. 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잠2:18) 품이 있는 지도자들은 보고 싶다. <광주 성안교회 담임목사>

중고칼럼



김재영

비전 있는 지도자

지만 시워드 장관은 평생 비웃음의 대상이었다. 심지어 알래스카는 '시워드의 아이스 박사'라 놀림감이 되었고 실패한 거래를 뜻하는 말로 시워드의 어리석음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로부터 30년 뒤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발견되고 20세기에 엄청난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되자 모든 사람은 그를 '꿈의 사람'이라고 불렀다. 알래스카는 미국의 보물이 됐고 시워드 미국의 영웅이 됐다. 알래스카에서 가장 대표적인 빙하인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빙하'를 볼 수 있는 곳에 '시워드'라는 도시가 있고 앵커리지에서 페어뱅크에 이르는 고속도로 이름이 '윌리엄 시워드 하이웨이'이다. 그는 미래 가치에 투자했던 사람이다. 그는 '눈 속의 보물'을 사자고 다음과 같이의 회를 썼다. "어려운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바라보

고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보고를 바라보고 살자는 것입니다. 어려운 나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꿈의 사람은 미래 가치를 위해 현재의 가치를 희생하는 사람이다. 영국의 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명저 '역사의 한 연구'에서 역사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도전과 응전의 도식'을 설명했다. 한 민족이 직면한 민족적 도전을 슬기롭게 응전하면 새로운 역사의 장이 개막되지만 창조적 응전을 하지 못할 때는 역사는 퇴보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토인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한 민족에게 닥쳐온 도전을 창조적 응전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대대종이 아니라 창조적 소수, 곧 지도자들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사업가 로빈스(Anthony Rob-

기고



강성욱

KTX와 인천국제공항이 만났다

용도 만만치 않다. 좀더 빠르고 좀더 쉽게 인천공항을 이용할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지역민의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 그럼 우리 지역에서 더 편리하고 더 빠른 이용 방법은 무엇일까? 광명역에서 1일 8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서울역 방면 KTX로 환승 후 코레일공항철도 서울역터미널(KARST, KORAIL Airport Railroad Seoul Station & Terminal)을 이용하여 보자. 승차권은 가까운 역에서 KTX 연계 공항직통열차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고 공항직통열차 운임(1만3300원)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물론 환승해야 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지만 카르스트 내 탑승·수하물발송·출국수속 시간은 30분이 소요되는 반면 공항에서 똑같은 과정을 수속할 경우 3시간 가량 소요됨을 감안한다면 카르스트를 이용하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셈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역과 인천공항역

전 구간 완전개통으로 서울역 지하에 새로 문을 연 카르스트(KARST)는 기차역에 들어선 공항으로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전국에서 KTX로 서울역에 도착하여 카르스트에서 출국수속과 수하물 발송, 환전, 휴대폰 로밍 등을 할 수 있다. 이후 공항까지 직결되는 직통열차를 타면 공항까지 43분 만에 도착하고 외교관 등만이 이용하는 전용출국장을 거쳐 10분이면 면세구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를 위해 카르스트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이 입주하여 탑승수속과 수하물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입국관리 사무소가 입주하여 출국심사를 한다. 티켓 확인부터 수하물 발송, 출국심사까지 카르스트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이다. 또 언제든지 무료로 짐을 맡기거나 부친 후 남은 시간은 다른 용무를 처리하거나 도심관광을 마친 후 공항으로 갈 수 있는 '얼리 체크인(Early Check-in)' 서비스도 있다.

돈 쌓아둔 대기업, 중소기업은 상생 외면하는 일

중소기업에서 자금 업무를 맡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들은 하루하루 버티다가가 힘들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자금이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들은 연달아 부도를 내고, 그나마 버틸만한 중소기업들은 어떻게든 현금을 확보해 두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 와중에 최근 대기업들이 돈을 쌓아두고 있는 뉴스를 접했다. 화가 났다. 왜 대기업들이 돈을 쌓아두고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여유를 풀어 주는지 이

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에는 여유를 풀어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2차 협력업체의 이 같은 나쁜 행태는 대기업보다 더 나쁜 일이다. 자기네는 현금을 받아 잇속을 챙기면서 그 밑의 3차 중소기업에 여유를 풀어준다면 대기업들이 현금을 내주는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물론 여유로 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회사 규모에 현금을 쌓아놓고도 납품업체에는 몇 달짜리 여유를 준다던 비난받아 마땅하다. 여유가 있는 대기업은 현금으로 결제하는 비중을 높이고 여유로 결제하더라도 그 기간을 짧아 중소기업과 상생해 주기 바

라. <남민배·광주시 관산구 고령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無等鼓... 안도현은 중국집 배달 소년의 성장기를 그린 어른 동화 '짜장면'에서 "어떤 글을 쓰더라도 짜장면을 자장면으로 표기하지는 않을 작정"이라며 "짜"라는 된소리로 인해 우리 기억속에 배어있는 그 법에서 훨씬 그윽하게 코를 자극한다"고 썼다. 이현의 동화 '짜장면 불어요'에서도 배달원은 아르바이트 소년에게 "아 임마, 자장면이 뭐냐, 자장면이 뭐냐, 자장면이 뭐냐, 자장면이 뭐냐"라고 되물었다. '짜장면'을 '자장면'이라 마음 편하게 부르기까지 2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거리낌없이 쓰이던 '짜장면'이 생활과 동떨어진 '자장면'으로 발음되고 표기된 것은 1986년 외래어표기법이 생기면서부터다. 국립국어원이 자장면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한자어 '자장면(炸醬麵)'의 초성 'zh'는 중국어 표기 원칙에 따라 된소리를 피해 'z'로 적는다는 것과 사전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